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2026.04.19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 디지털금융-Trading 직무

1장. 한국 증권·디지털금융 산업 지형

거래대금 폭발이 다시 연 '증권업 황금기'

2025년은 국내 증권업이 다시 사이클의 정점으로 복귀한 해로 기록됩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3년 10.1조원에서 2025년 말~2026년 1월 24.2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한국 증시 시가총액도 2024년 초 2,254조원에서 2026년 초 3,972조원으로 76%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거래 활성화의 결과 국내 61개 증권사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9.65조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ROE) 역시 10.0%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자기자본 총계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102.4조원에 이르렀으며, 순자본비율(NCR)은 평균 915.1%로 건전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거시 환경이 개선된 결과만은 아닙니다. 2020년 이후 급격히 유입된 개인 투자자 기반이 2022~2023년 긴축 국면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누적되면서, 정책 모멘텀(밸류업·반도체 랠리·금리 인하 기대)이 트리거되는 순간 수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직접투자자와 레버리지·인버스 ETF, 테마형 ETF, 개별 옵션 시장이 동시에 커지면서 Trading 복이 다룰 수 있는 상품군 자체가 확장된 점이 수익 기반을 두껍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규모의 회복'이 아니라 '상품·채널·고객 다변화'에 기반한 질적 확장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Trading 직군 지원자는 거래대금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구조적 변화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원 재편과 해외주식 위탁의 부상

수익 구조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가 2021년 8,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2.4조원으로 약 3배로 확장됐다는 점입니다. 위탁수수료 총액은 2024년 6.26조원에서 2025년 8.6조원으로 37.3% 증가했으며, 그 중 해외주식 비중은 34%에 달합니다. IB 수수료는 4.09조원으로 9.2% 증가했고, WM 수수료는 26% 성장하여 전통 부문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채권운용을 포함한 FICC 손익은 금리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2.66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Trading 부서가 단일 상품군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대목입니다.

MTS(Mobile Trading System) 체결 비중은 2024년 60.5%에서 2026년 초 65~66% 수준으로 급등했고, 키움증권의 '영웅문S'(월평균 이용자 265만명, 업계 1위), 삼성증권 mPOP, 미래에셋 M-STOCK 순으로 이용자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Trading 직무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트레이더가 상품을 만들면 세일즈가 판매"하는 순차적 구조였으나, 이제는 "디지털 채널에서 고객이 실시간으로 체결하고, 그 체결 흐름 자체가 Trading 복의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전략과 직접 연동"되는 양방향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금융-Trading이라는 직무명 자체가 이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며, 지원자는 "리테일 유동성을 트레이딩 기회로 치환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결정적 진전

2025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본격 착수됐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구조이므로, 실무적으로는 2027년 2월을 전후해 본격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각투자자와 토큰증권을 포함한 RWA 시장의 시가총액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은 2024년 약 34조원(한국 GDP의 1.5%)에서 2030년 367조원(14.5%)까지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PwC Kore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각각 'NFI', 'STO 비전그룹', 'PULSE' 등 컨소시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며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화투자증권은 단독·글로벌 파트너십(시큐리티이즈, 쟁글, 크리서스랩스)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STO 제도화가 Trading 부문에 주는 실무적 함의는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째, 새로운 기초자산(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인프라 지분, 명품 등)이 상장형 상품과 유사한 유통 구조로 들어오면서 이를 매수·매도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시장조성자(LP)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둘째, 온체인 결제·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구조에서 전통 증권사의 호가 엔진, 리스크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이 Trading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기초자산의 실체성, 공시, 평가 방법론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Trading 직원도 상품·규제·실사 실무를 교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이 영역을 회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에 있고, 디지털금융-Trading 직군이 왜 회사의 전략과 직접 연결되는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가상자산·AI-마이데이터가 만드는 삼중 파고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2025년 2월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매도 계좌를 개방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6.0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시가총액은 55.3조원까지 확대됐습니다. AI 측면에서는 KB증권의 '마블(M-able)', NH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협업하는 관택 기반 AI 알고리즘 랩, 미래에셋의 AI 분할매수 전략 등이 등장해 개인 투자자 대상 초개인화 자산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은 2025년 6월 19일 시행되어 은행·카드·보험·증권·대부업·공제회 등 사실상 전 금융권의 자산 정보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자동 조회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증권사 입장에서 고객 온보딩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통합 자산관리'라는 고부가 서비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2월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2025년 7월 개정상법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 시행이 겹치며, 증권업은 위탁매매·IB·자문·의결권 컨설팅 전반에서 구조적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고(가상자산·AI-마이데이터)에 밸류업·상법 개정까지 더하면, Trading 부문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상품과 고객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꿔 말해 전통적인 "매수·매도 호가 내고 PnL 내는" 트레이더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발·데이터·퀀트·규제를 이해하는 하이브리드형 인재, 즉 '빌더'가 필요해진다는 논리가 완성됩니다.

증권사 가치사슬과 Trading 부문의 위상

증권사 가치사슬은 전통적으로 위탁매매(Brokerage), 기업금융(IB), 트레이딩(자기매매·PI), 자산관리(WM), 그리고 FICC의 다섯 개 축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 중 Trading 부문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자기매매, ELS/DLS 헤지운용, 파생상품 운용(FICC 선물·옵션·금리스왑·통화스왑), 주식 시장조성과 ETF·ETN의 유동성 공급자(LP),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채널 연동 알고리즘 매매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자기매매와 집합투자증권 운용손익이 순영업수익의 30% 내외를 차지할 만큼 Trading 의존도가 높는데, 이는 변동성이 크지만 동시에 레버리지된 실적 엔진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형 종투사 대비 중소형사는 자기자본 열위로 레버리지 한도,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규제적 혜택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알고리즘과 디지털자산 영역에서의 차별화가 생존 전략의 중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화투자증권이 종투사 트랙을 우회하여 'RWA 허브'라는 새로운 경쟁 무대를 연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자본 2조원으로는 발행어음과 IMA, 부동산 PF에서 대형사와 정면으로 겨룰 수 없지만, 개발 중심 Trading과 디지털자산 유통에서는 체급이 아닌 속도와 결정권이 경쟁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원자가 이 구조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면접관은 "이 사람은 회사의 전략을 이해한 채 지원했다"라는 신뢰를 받게 됩니다.

지원 전략 시사점

Trading 직무 지원 시 "해외주식, FICC, ELS 헤지, LP, 알고리즘"이라는 부문 안의 다섯 개 하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트레이딩에 관심 있다"로는 부족하고, 예를 들어 "ELS 헤지는 Greeks 중립화가 핵심이고, ETF LP는 추적오차와 iNAV 관리가 핵심이며, HFT는 저지연 인프라와 신호 정확도가 핵심"이라는 식으로 영역별 성공 요인을 구별해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도가 드러납니다. 또한 STO 제도화 일정 (2027년 본격 시행),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 가상자산 허용 로드맵이 Trading 북의 상품 다변화와 직결된다는 논리를 함께 준비하면 면접에서 "산업 이해도 + 회사 전략 적합성 + 직무 이해도"를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답변이 만들어집니다.

2장. 경쟁사 비교와 한화투자증권의 좁은 길

비교군 선정 — 체급은 중형, 전략은 핀테크와 대형 사이

한화투자증권은 별도 자기자본 약 2조원으로 업계 14~15위권에 위치합니다. 상단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약 12.0조원, 미래에셋증권 10.3조원, NH투자증권 8.4조원, 삼성증권 7.4조원, 키움증권 5.8조원 규모로 포진해 있고, 하단에는 토스증권(별도 1조원 내외)과 카카오페이증권(약 4,000억원대)이 있습니다. 즉 순수 체급으로만 보면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이 직접 비교군이고, 전략 벤치마킹의 대상으로는 미래에셋과 삼성, 한국투자가 기준점이 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 양쪽 그룹 사이에 위치하면서, 체급 대비 공격적인 디지털 전략으로 위쪽을 겨누고, 체급에서 비슷한 핀테크 증권사와는 다른 '전문 증권사' 정체성으로 아래쪽과 차별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 다섯 플레이어의 포지셔닝 — 상세 해설

첫째,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약 12.0조원으로 업계 1위급이며, 자본 규모를 활용한 전방위 사업을 전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자산 접점을 확대하고 있고, 종합투자계좌(IMA) 1호 인가 후보로 거론되는 등 규제 트랙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자본으로 대부분의 전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폭에 있지만, 반대로 선택과 집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둘째,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10.3조원으로 국내 1위 해외주식 대표 브랜드였으나, 최근 토스증권에 외화증권 수탁 점유율에서 일부 추월당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STO 영역에서는 하나금융과 SKT가 참여하는 'NFI(Next Finance Initiative)'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으며, AI 분할매수 같은 리테일 혁신 상품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미국·인도·베트남 등) 면에서는 국내 최대 수준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 8.4조원으로 농협금융지주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STO 비전그룹을 통해 농협·케이뱅크·부동산 조각투자사 펀블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전통 MTS '나무(NAMUH)'와 대안 MTS 'QV'를 병행하며 고객 세그먼트를 분리하는 시도도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넷째,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7.4조원으로 mPOP 앱과 HNWI(고액자산가) 대상 '영앤글로벌(Young & Global)' 서비스가 간판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이며, STO에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자본력과 브랜드로 빠르게 따라잡을 여력을 가진 플레이어입니다. 다섯째,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5.8조원이지만 MTS '영웅문S#'의 월평균 이용자 265만명으로 리테일 체결 규모는 단연 1위입니다. 다만 2025년 4월 전산장애 이후 MTS 만족도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며 '플랫폼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고, 이 사건은 디지털 트레이딩 인프라가 얼마나 기본적으로면서도 결정적인 경쟁 요인인지 모든 증권사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핀테크 증권사의 역습 —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이질적 궤적

토스증권은 2024년 첫 연간 흑자(영업이익 1,492억원)와 해외주식 거래대금 월 30조원 돌파, 그리고 미국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추진이라는 3연타로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확장을 선보였습니다.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점유율은 2022년 5.25%에서 2024년 상반기 11.81%로 2배 이상 급등했고, 이는 사실상 대형사 위주의 해외주식 시장 지형을 재편한 사건입니다. 토스의 성공 요인은 모회사 토스뱅크·토스페이의 MAU 2,480만명이라는 거대한 모바일 트래픽 풀과, 앱 경험의 일관성, 그리고 젊은 세대 중심의 해외주식 수요를 직관적 UX로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2025년 첫 연간 흑자(영업이익 427억원, 매출 2,420억원)를 달성하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지만, 커뮤니티 MAU 71만명으로 토스(220만명)의 약 1/3 수준에 그쳐 격차가 벌어졌고, 실적 규모도 토스 대비 약 8.5배 열위에 놓였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라는 2,000만 MAU 플랫폼 연계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익 다각화가 더딘 편이며, 리테일 집종의 토스와 달리 다소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두 플레이어의 역습은 중형 증권사 전반에 '모바일 UX 품질'과 '수수료 인하 압력', 그리고 '젊은 세대 고객 기반 상실'이라는 삼중 압력을 가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의 Smart M + STEPS 통합과 AI 탑재 드라이브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유일한 '틈새' — 디지털자산 단독 전진

대형사가 컨소시엄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사이에, 한화투자증권은 단독·글로벌 파트너십을 축으로 한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라는 가장 공격적이고 명확한 포지셔닝을 선택했습니다. 2021년 583억원에 취득한 두나무 지분 5.94%는 현재 10배 이상으로 평가되며, 2025년 9월 한 때 매각 검토설이 있었으나 2026년 1월 23일 "매각 계획 없음" 확정 공시로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이 결정은 회사가 두나무 지분을 단순 재무 투자로 보지 않고 '디지털자산 전환 서사의 코어 자산'으로 재정의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10월 美 시큐리티이즈(Securitize)에 대한 지분 투자로 해외 RWA 토큰화 플랫폼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했고, 2025년 12월에는 아부다비 블록체인 이벤트 ADFW(Abu Dhabi Finance Week)에서 크리스스랩스와 MOU를 체결해 중동 RWA 허브와의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가상자산 공시-데이터 플랫폼 쟁글(Xangle)에 100억원 전략 투자를 단행하여 국내 가상자산 인프라 쪽의 주요 지분을 확보했고, 2025년 12월 인도네시아 칩타다나 자산운용 80%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투자를 한 장의 그림으로 이어 붙이면, "한국(두나무·쟁글) — 미국(시큐리티이즈) — 중동(크리스스랩스) — 동남아(베트남 Pinetree·인도네시아 칩타다나)"로 이어지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벨트가 완성됩니다. 이는 국내 중형 증권사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독자적 전략이며, Trading 직군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룰 상품과 시장이 이미 그려져 있고 회사가 거기에 자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룹 차원의 재편 — 'PLUS' 브랜드와 금융 계열분리 시나리오

2026년 1월 30일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공동 브랜드 'PLUS'로 통합되며 KGC 골프팀 스폰서십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CI 정비가 아니라 한화그룹 금융 계열사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간 교차 판매와 통합 자산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읽힙니다. 김동원 사장(한화생명 부사장) 승계 과정과 연계하여, 업계에서는 (주)한화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한 한화생명 측 금융 계열분리 시나리오가 지속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한화투자증권도 함께 이동합니다. 장병호 대표가 한화생명 '금융비전Unit' 담당임원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 그룹의 금융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증권 부문에 전략적 실행자를 배치한 인사로 해석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이 맥락을 이해하면, 한화투자증권은 단순한 개별 증권사가 아니라 한화그룹의 금융 통합 전략 속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 비교에서 도출되는 본질적 차별점

경쟁사 전반을 종합하면, 한화투자증권의 본질적 차별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략 독립성**입니다. 대형사가 컨소시엄 안에서 공동 분모를 만드는 동안 한화는 단독으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파트너 중심**입니다. 국내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대신 美 시큐리티이즈, UAE 크리서스, 국내 쟁글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기능의 파트너를 조합해 글로벌 RWA 밸류체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물자산(RWA) 중심**입니다. 같은 가상자산 계열이어도 코인·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실물을 토큰화한 자산'에 초점을 두어 전통 증권업의 심사·공시·리스크 관리 역량을 그대로 전이시킬 수 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지만, 함께 결합될 때 경쟁사와의 차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왜 한화투자증권입니까?"라는 단골 질문에 대해 지원자는 "대형사의 종투자 트랙, 핀테크의 UX 트랙이 아닌 제3의 길 — 디지털자산·RWA 전문 중형 증권사 — 을 선도하는 유일한 플레이어"라는 프레이밍을 기본 축으로 삼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밍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로 두나무 지분 유지 결정(2026년 1월), 쟁글 100억원 전략 투자, 시큐리티이즈 투자, 그리고 동남아 벨트(베트남 Pinetree-인도네시아 칩타다나)를 세트론 제시하면 다른 지원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장. 한화투자증권 심층 진단

2025년 턴어라운드 — 영업이익 3,616% 반등의 구조

한화투자증권은 2024년 부동산 PF 총당금의 선제적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약 40억원까지 급감하며 일시적인 실적 충격을 겪었으나, 2025년 연결 영업이익 1,477억원(전년 대비 3,616% 증가), 당기순이익 1,020억원(+161.6%), 매출 3조 946억원(+23.9%)으로 극적인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5년 3분기 단독 기준 영업이익 376.6억원(+578% YoY), 당기순이익 214.5억원(+533%)은 전 사업부문 흑자전환을 견인한 결정적 인 분기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수익성은 턴어라운드를 넘어 '정상 궤도'에 재진입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NCR은 2024년 말 670%에서 2025년 말 863%로 개선됐고, 자기자본은 1조 7,062억원에서 2조 682억원으로 21.2% 증가했으며, 총자산은 17조 3,579억원까지 확대되어 전년 대비 23.8% 커졌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자본 확충과 이익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며, 회사가 다음 사업 단계(디지털자산 전환)를 감당할 체력을 갖추었다는 근거가 확보됐습니다.

이 반등의 구조적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업황 개선의 수혜를 본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의도적으로 PF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함으로써 이후 분기부터의 이익 가시성을 높인 전략적 재무 관리의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계적 선제 대응은 당장의 숫자는 나쁘게 보이지만 장기적 신뢰도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며, 2025년 기록적 반등을 '회복탄력성 증명'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제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사업부문별 구조 — 트레이딩이 '조용한 엔진'

2025년 사업부문별 순영업수익과 손익 구조를 보면, WM 부문은 순영업수익 1,901억원(+327 YoY)에 손익 492억원을 기록했고, IB 부문은 순영업수익 809억원에 손익 491억원으로 전년 손실 △249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그중 프로젝트금융본부가 △325억원에서 +222억원으로, 부동산금융본부가 161억원에서 364억원으로 각각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홀세일 부문은 순영업수익 433억원, 손익 188억원이었고, Trading-기타 부문은 순영업수익 789억원, 손익 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원 증가했습니다. 즉 Trading 부문이 이익 기여도에서 WM·IB와 근접한 3대 축을 이루며 회사의 수익 엔진을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의 실적 설명에서도 "파생상품 관련 이익 증가"와 "Trading-WM 부문 순영업수익 증가"가 핵심 요인으로 명시되어, Trading이 단순 보조 부문이 아니라 이익 성장의 동력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한화투자증권 Trading 부문은 중소형사 Trading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자기자본 한계로 인해 절대 규모에서는 대형사를 따라가기 어렵지만, 상대 수익률·수익 회전율·운용 효율 관점에서 오히려 대형사보다 우수한 지표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수익성 높은 엔진'이라는 특성은 디지털금융-Trading 직군이 향후 담당할 업무 영역과 직결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장병호 대표의 빅픽처 — RWA 허브와 디지털 실�크로드

2025년 7월 한두회 전 대표의 일신상 사유 사임 이후, 한화생명 부사장이었던 장병호 대표가 2025년 9월 1일 취임했고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장 대표는 1995년 한화 공채 입사, 한화차이나·한화큐셀에서의 해외 근무 경력, 그리고 한화생명 금융비전Unit 담당임원이라는 독특한 커리어를 가진 '해외통이자 그룹 금융 비전 실행 주도자'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인 증권사 CEO가 IB·리서치·브로커리지 중 하나의 전통 영역에서 성장한 경력을 가지는 것과 달리, 장 대표의 커리어는 이미 '전통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2026년 경영전략회의(2025년 12월 17일)에서 'Global No.1 RWA Hub' 비전을 공식 선포하며 세 가지 실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로, 이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과 지분 투자 및 상품 공동 개발을 통해 생태계 초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주도'로, 단순한 서비스 참여자가 아니라 규칙과 인프라를 만드는 위치에 서겠다는 포부입니다. 셋째는 '해외법인 연계 상품 소싱'으로,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 개념인데, 베트남·인도네시아·중동에서 소싱한 기초자산을 국내에서 토큰화 하여 판매하고, 반대로 국내 자산을 해외에 공급하는 양방향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향성을 브랜드화해 'TraDeFi(Traditional + DeFi)'라는 표현으로 명문화했고, 이는 전통 금융의 신뢰와 컴플라이언스에 탈중앙금융의 유연성과 속도를 결합한다는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차별화 포인트 — STEPS에서 온체인까지

MTS 측면에서는 2024년 Smart M과 STEPS를 통합한 '한화투자증권 MTS'를 출시한 데 이어, 2025년 2월 AI 기능(뉴스 요약, 해외 홈, 연금 홈, 종목 영향 분석)을 탑재하며 리테일 경험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AI 탑재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체결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트레이딩 흐름(리테일→LP→Trading 북)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2025년 9월 메인넷과 서브넷 구축에 착수했고, 커스터디(자산 보관)-월렛-토큰화 기술-온체인 데이터 서비스라는 4대 축을 손종민 미래전략실장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베트남 Pinetree Securities가 영업수익 216억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가장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고,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PineX', 초보자용 'Stock123', 전문가용 'Alpha Trading'이라는 3단계 플랫폼 라인업으로 현지 고객 세그먼트를 분리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칩타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나 증권과 자산운용을 모두 보유한 '투트랙' 구조로, 동남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에서 교차 영업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으며, 싱가포르를 대체투자 허브로 포지셔닝되어 있어 글로벌 자산 소싱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세거점을 디지털자산 전략과 결합하면, 향후 Trading 부서가 다루게 될 상품과 고객의 범위는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요인 — 자본 열위·PF 잔존·규제 재편

가장 구조적인 리스크는 자기자본 규모의 열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모험자본 의무공급 규제'(2026년 10%에서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와 '발행어음 기업금융 50% 의무' 등 종투자 중심 규제 재편에서 한화투자증권은 수혜 범위 밖에 위치합니다. 또한 4년 연속 무배당(2026년 정기주총에서도 배당안 미상정)으로 주주환원 공백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동산 PF는 2024년 총당금을 선제 인식하며 부담을 덜어냈지만, 새 PF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20% 기반 위험가중치 차등)의 시행으로 중형사의 PF 취급 여건은 여전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통합 MTS·AI 탑재 과정의 장애 방지 체계 구축이 과제이며(2025년 키움 사례가 상기시키는 교훈), 금융위의 NCR 개편 예고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요인입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들은 동시에 '왜 디지털자산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답변이기도 합니다. 체급으로 대형사와 정면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차별화된 축을 만들어야 했고, PF 위주 성장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으며, 주주환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고성장 사업의 가시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RWA 허브 비전은 이 모든 요구에 대한 종합적 해답으로 설계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원자는 '리스크 → 전략 → 직무'라는 논리 체인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전략 시사점

이 회사는 "2024년 바닥 → 2025년 턴어라운드 → 2026년 RWA 전환"이라는 3단 점프 서사가 매우 뚜렷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2025년 영업이익 1,477억원 반등의 실질적 이유는 IB 부동산 PF 정상화와 Trading·WM의 동반 성장이었고, 2026년부터는 RWA·디지털자산이 3단계 동력"이라는 논리 프레임을 쓰면 기업 이해도와 Trading 직무의 전략적 위상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3단 점프의 네 번째 단계는 해외법인 기반 디지털 실크로드이며, Trading 부서는 그 중심에서 상품·유동성·리스크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연결하면, 지원 동기의 시간축이 "입사 시점 + 3년 후"까지 확장되며 몰입도 있는 서사가 완성됩니다.

4장. 인재상과 조직 문화의 진짜 코드

한화그룹 핵심가치 — 도전·헌신·정도의 의미 재해석

2012년 김승연 회장이 선포한 한화정신 '신용과 의리', 그리고 3대 핵심가치 '도전·헌신·정도'가 한화그룹 인사 철학의 기본 틀입니다. '도전'은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 '헌신'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 목표에 헌신", '정도'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공정한 대우"로 정의됩니다. 세 단어만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가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Trading 직무의 맥락에 치환해 보면 의외로 매우 실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도전'은 Trading 부서에서는 '새로운 매매 전략,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인프라 제안을 주저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략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트레이더는 장기적으로 알파를 내지 못하며, 시장과 상품의 변화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를 선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헌신'은 '팀 PnL과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공동 책임'으로 읽힙니다. 트레이딩은 개인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팀 한도 관리, 시스템 가동, 장애 복구, 교대 업무 등 팀 단위 책임이 훨씬 크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팀에서 배제됩니다. '정도'는 '리스크 한도와 컴플라이언스를 절대 넘지 않음'으로 해석됩니다. 단기적으로 한도를 넘어 이익을 낸 트레이더가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가장 큰 손실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교훈이며, 한화의 '정도' 가치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빌더(Buidler)' — 2026 공채가 드러낸 진짜 인재상

2026년 상반기 공채에서 김도형 혁신지원실장은 "디지털자산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김수연 인재관리팀장은 "Buidler(비들러), 즉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개발자, 불확실한 환경에서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며 학습하는 인재"를 공식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Buidler'는 원래 블록체인·크립토 커뮤니티에서 'builder'의 의도적 오타자로 시작된 은어로, "시장이 뜨거울 때 투기하기보다 묵묵히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공식 채용 메시지에 이 용어를 차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의 인재 철학이 전통 금융 중심에서 '개발자와 함께 만드는 금융'으로 이동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인재상은 과거의 'Spec 충실형' 인재상과 명확히 차별화됩니다. 과거에는 금융 관련 자격증, 재무·회계 전공, 대기업 인턴 경험이 주요 평가 지표였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를, 어떤 기술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양면의 메시지를 주는데, 한편으로는 금융 전공이 아니어도 기술·데이터 역량이 있으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말로 하는 관심'이나 '자격증 개수'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Trading본부 특유 문화 — CS 전공자 중심 '디베이팅' 조직

한화투자증권 Trading본부 HFT팀의 경력 공고를 꼼꼼히 읽어 보면, 이 조직의 문화가 일반 증권사와 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팀장 및 팀 구성원 다수가 CS 전공자이며, 매매전략 구상·시스템 개발·운영을 모두 내부에서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debating이 매우 빈번하고 활발하다"고 적혀 있으며, "성과 배분의 주요 기준 역시 개인의 개발 역량 및 기여"라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경력이나 금융 관련 지식 보유 여부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는 파격적인 문장까지 등장합니다. 이는 기술 역량이 금융 경력을 앞서는 역전된 채용 논리를 공식 채용 문서에 못박아 둔 것이며, 국내 증권사 중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디베이팅'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위계에 기반한 '지시와 이행'이 아니라, 기술적·논리적 근거로 서로 설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 선택이나 구현 방식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반대 의견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토론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팀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 제도 — 호칭·리모트·프로젝트 성과급

2026년 디지털·글로벌 경력채용 사이트에 공개된 인사제도는 "직급과 호칭 없이 'OOO 님'으로 호칭, Remote Work 가능, 성과급은 프로젝트 성과에 연동, 연봉은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에 따라 개별 협의"라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PC-OFF 정시퇴근, 복지포인트, 최대 2년의 채용휴가, 한화이글스 응원 문화 등 전통적 대기업 복지와 실리큰밸리식 유연성이 혼재된 형태가 결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경력 트랙'에 특화된 것으로, 신입 공채 전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문화의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방향성'을 보여주는 공식 선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화 선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전통적 한화 계열사 이미지에서는 다소 먼 '리모트·협업 연봉·프로젝트 성과급'이 회사의 공식 채용 메시지에 등장했다는 것은, 회사가 적어도 특정 직무군에 한해서는 실리콘밸리식 인재 운영 체계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금융-Trading은 바로 이 시그널이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군 중 하나입니다.

Trading 도메인이 선호하는 성과 창출 공통 역량

Trading 도메인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역량·사고방식·행동 패턴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리스크 감내력과 원칙 준수의 균형**입니다. 손실 국면에서도 한도를 지키고, 이익 국면에서도 한도를 넘지 않는 절제력은 장기 생존의 전제이며, '오늘 한 번만 한도를 넘자'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직군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둘째, **숫자와 확률의 감각**입니다. 손익 기대값, 분산, 꼬리위험을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수리적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며, 이는 "베팅 규모를 Kelly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거나 "최악의 10% 시나리오에서 포지션이 얼마나 깎이는가를 실시간으로 가늠한다" 같은 사고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셋째, **시장 물입도와 지속 학습**입니다. 매크로, 섹터, 개별 상품, 기술의 복합 변화에 대한 일상적 추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과 규제 변동은 Trading 북의 가치에 직접 반영되므로 지속적인 독해가 요구됩니다.

넷째, **압박 상황에서의 신속 의사결정**입니다. 장중 거래소 장애, 시장 급락, 플래시크래시 상황에서는 수 초 단위의 판단이 이후 수십억 원의 손익을 가르며, 평소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둔 사람만이 그 순간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획·기술·리스크·컴플라이언스·IT 부서와의 수평적 디베이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본인의 판단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팀에서 고립됩니다. 여섯째, **장애와 위기 대응의 침착함**입니다. 시스템 기반 운용 특성상 복구·우회·수동 모드 전환 루틴이 체화되어 있어야 하며, 한두 번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외부 리뷰 사이트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가고 충성하는 사람은 남는다"는 부정적 피드백도 일부 존재하지만, 2025년 이후 디지털자산·해외법인 중심 신사업 드라이브와 호칭·리모트·성과급 체계 개편으로 문화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도전·혁신·정도"를 기계적으로 나열하기보다, "도전은 매매 전략과 기술 스택에 대한 디베이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혁신은 팀 PnL과 시스템 가동률에 대한 공동 책임, 정도는 리스크 한도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절대적 준수"라는 식으로 Trading 직무 문맥으로 치환해 설명하면 '빌더' 인재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한 "과거 실패에서 학습한 데이터·개발 프로젝트 경험"을 구체적 수치(개선 전후 지표, 처리 시간, 오류율, PnL 혹은 팀 KPI)로 제시하는 것이 김수연 팀장이 강조한 "결과로 증명"과 직결됩니다. 이 두 축(가치의 재정의 + 결과 중심 서사)을 결합하면, 한화의 문화 코드에 가장 근접한 답변이 완성됩니다.

5장. 디지털금융-Trading 직무 해부

공고 문구 해독 —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스템 개발"

2026년 상반기 공채 보도자료에서 디지털금융 직군은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스템 개발 등 기술 기반 금융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중점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2023년 하반기 공고를 교차 검토하면, Trading 세부 직무가 "Trading — 채권 및 파생결합증권 마케팅·세일즈·기획"과 "Trading — High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Frequency Trading 운용 및 시스템 개발"의 두 트랙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후자가 바로 현재 '디지털금융-Trading'의 원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직 Trading본부 HFT팀 경력 JD는 리눅스 환경 숙련, 딥러닝 프로덕션 적용 경험, 데이터 가공·모델 설계·튜닝 경험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역량 앵커가 됩니다.

즉 '디지털금융-Trading'이라는 직군명은 마케팅적 수사나 모호한 신조어가 아니라, 회사의 기존 HFT-시스템 트레이딩 트랙이 디지털자산-온체인 트레이딩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명칭의 정확한 해석 자체가 지원자의 이해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며, 자기소개서에 "저는 디지털금융-Trading이 단순한 디지털 채널 담당자가 아니라, HFT-시스템 트레이딩의 연속선상에서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직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쓸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전통 트레이더와의 결정적 차이 — 세 가지 축

전통적 Trading 직무와 디지털금융-Trading의 차이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포지션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통 Trading은 관계 영업, 상품 세일즈, 프랍 운용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며, 사람의 '감'과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디지털금융-Trading은 시스템과 알고리즘, HFT 중심이며, 업무의 대부분이 개발과 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역량의 중심**이 다릅니다. 전통 Trading은 시장 감각과 상품 지식이 최우선이었지만, 디지털금융-Trading은 컴퓨터과학·데이터·개발 역량이 금융 지식과 동등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 HFT팀 JD는 "금융 경력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여, 기술이 금융에 우선한다는 철학을 공식화했습니다. 셋째, **성과 배분 방식**이 다릅니다. 전통 Trading은 주로 개별 PnL 기여에 따라 성과가 배분되었지만, 디지털금융-Trading은 PnL과 개발 기여를 결합한 복합 지표로 성과가 측정됩니다. 이는 특히 주니어 입장에서 의미가 큰데, 초기 단계에 직접적 PnL 기여가 작더라도 팀이 사용하는 백테스트 인프라, 시세 파이프라인, 알고리즘 튜닝 등에서의 기여가 성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스펙트럼 — 여덟 개 범주로 확장되는 Trading

디지털금융-Trading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다음 여덟 개 범주로 정리됩니다. 첫째, **HFT-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딥러닝 기반 신호 생성, 저지연 매매 인프라 운영, 마이크로초 단위 체결 품질 관리가 포함됩니다. 둘째, **프랍 트레이딩**으로, 주식·선물·옵션을 대상으로 회사 자기자본을 운용하는 전통 영역이며 다양한 전략(모멘텀·평균회귀·이벤트 드리브 등)이 활용됩니다. 셋째, **시장조성자(MM) 및 ETF·ETN LP**로, 양방향 호가를 제공하며 일정 스프레드(일반적으로 2~3%) 이내로 유지하고, 기초 바스켓 대비 추적오차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넷째, **ELS·DLS 헤지운용**으로, 델타·감마·세타·베가·로로 통칭되는 Greeks를 중립화하며, 특히 녹인(Knock-In) 구간에서의 감마 관리가 핵심 기술입니다.

다섯째, **파생상품 운용(FICC·지수 차익거래)**으로, 코스피200 지수와 바스켓의 현·선물 차익거래가 대표적이며, 금리·통화·크레딧 파생으로 영역이 확장됩니다. 여섯째, **디지털 채널 트레이딩**으로, MTS 및 API를 통한 자동 주문 흐름을 관리하고, 리테일 유동성을 Trading 북의 재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곱째, **RWA·토권증권 유통·호가 제공**으로, 회사의 미래 방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이며, STO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2027년 이후 실무가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째, **동남아·글로벌 크로스보더 거래**로, 베트남 Pinetree, 인도네시아 칩타다나 등 해외법인과 연계한 상품 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자가 이 여덟 개 영역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 자신이 관심 있는 2~3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 관심사와 준비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맵 — 내부 8개 조직, 외부 6개 기관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Trading 직무의 이해관계자는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 각각 여러 축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첫째로 **IT-전산 조직** 과 일일 단위로 협업하며, FEP(Front-End Processor), DMA(Direct Market Access), 시세 스위치 등의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둘째로 **리스크관리 부서**는 VaR, 한도, 스트레스테스트를 담당하며 매매 한도 설정과 일일 모니터링을 주관합니다. 셋째로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자전거래, 불공정 거래 이슈를 관리합니다. 넷째로 **미들·백오피스**는 체결·정산·결제 프로세스를 담당하며, Trading의 체결 오류가 결제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로 **리서치**는 매크로·섹터·개별 종목 분석을 제공해 Trading 아이디어의 원천이 됩니다. 여섯째로 **세일즈·법인영업**은 기관 고객과의 접점이며, 블록딜·프로그램매매 주문이 Trading으로 유입됩니다. 일곱째로 **상품기획** 부서는 ELS·ETN·RWA 등 상품을 기획하며, Trading은 그 헤지·유동성 파트너가 됩니다. 여덟째로 **리테일·WM** 부서는 MTS 유동성의 원천이며, 디지털 채널 트레이딩의 협업 상대입니다.

외부에서는 첫째로 한국거래소(KRX)와 시장조성·LP 계약을 체결·운영하며, 둘째로 **코스콤**은 시세·체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알고리즘 매매, 고빈도 매매, STO·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담당하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자산운용사**는 ETF의 지정참가회사(AP) 및 LP 상대방으로 일상적 협업 관계에 있고, 다섯째로 **기관·헤지펀드**는 FIX 프로토콜 상대방으로서 주요 거래처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로 **해외 거래소와 Pinetree 등 동남아 법인**은 글로벌 거래 및 소싱 상대방입니다. 이 내부 8개·외부 6개의 관계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직무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필요 역량 스택 — 기술·지식·소프트스킬의 삼중 구조

기술 스택 측면에서는 Python이 백테스트·모델링·데이터 분석의 기본 언어이며, C++는 저지연 매매 엔진의 코어로 사용됩니다. SQL은 대용량 시세·체결·주문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수이고, R이나 Julia는 선택적 활용 언어입니다. 리눅스 CLI 환경 숙련도는 운용 서버 배포·관리의 전제이며, 딥러닝 프레임워크(PyTorch, TensorFlow)에 대한 이해는 한화투자증권 HFT팀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추가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PDE 수치 해법, Greeks 계산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파생상품 운용 이해의 깊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지식 측면에서는 호가 구조·체결 메커니즘·프로그램매매 규제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며, 주식·채권·FX·선물·옵션·ELS·ELW·ETN·ETF, 그리고 RWA와 토큰증권의 상품 구조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Greeks와 변동성 서페이스, 채권의 듀레이션·컨벡시티, 크레딧 스프레드, 통화 스왑의 베이스스 등도 익혀야 할 개념에 포함됩니다. **소프트스킬**로는 4장에서 정리한 여섯 가지 역량(리스크 감내력·숫자 감각·시장 몰입·신속 의사결정·협업·위기 대응)이 그대로 적용되며, 여기에 '디베이팅 가능한 논리 전개력'과 '문서·코드·결과의 재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내가 한 실험과 결론을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라는 과학적 태도를 의미하며, HFT·알고리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KPI — 수익·리스크·시스템·개발의 사차원 평가

성과 지표는 단일 PnL이 아니라 네 차원의 복합 지표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익 지표**로는 PnL, 샤프비율, 소티노비율, 정보비율(IR)이 사용되며, 단순 이익보다 위험조정 수익률이 더 중요시됩니다. **리스크 지표**로는 MDD(Maximum Drawdown), VaR 준수, 한도 준수율,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의 손실이 측정됩니다. **시스템 지표**로는 가동률, 장애 복구 시간(MTTR), 체결 지연(latency), 주문-체결 성공률 등이 활용되며, 이는 Trading 팀이 '운용자이자 운영자'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체결 품질**로는 슬리피지, 체결률, 시장 영향(market impact)이 측정됩니다. **LP 지표**로는 의무 호가 준수율, 스프레드 준수율, 추적오차가 별도 관리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기여도**는 한화투자증권이 명시적으로 성과 배분 기준으로 채택한 항목으로, 팀 공용 인프라·모델·라이브러리에 대한 기여가 포함됩니다. 지원자는 자신이 달성한 프로젝트 성과를 이 네 차원(수익·리스크·시스템·개발) 중 하나 이상에 매핑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 워크플로우 — 네 가지 시나리오로 본 하루

구체적 업무 이미지를 잡기 위해 네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시나리오 A, 코스피200 현·선물 차익거래**에서는 전일 종가·배당 지수·금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물 이론가를 산출하고, 장중 스프레드가 이론가에서 일정 폭 이상 벗어나는 순간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가동됩니다. 임계치를 초과하면 15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과 지수선물을 동시에 프로그램 매매로 집행하고, 체결 후 헤지비율을 리밸런싱합니다. 장 마감 후에는 PnL과 슬리피지, 실행 비용을 분석하여 다음날 전략에 반영합니다.

시나리오 B, ETF LP 운영에서는 개장 전 iNAV(실시간 순자산가치) 파이프라인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장중에는 2% 스프레드 준수 조건을 만족하며 양방향 호가를 자동 제공하고, 포지션이 누적되면 기초 바스켓이나 선물로 실시간 헤지합니다. AP(지정참가회사)로서 설정·환매 트리거를 모니터링하고, 월말에는 추적오차 리포팅을 작성해 운용사·거래소에 공유합니다. **시나리오 C, ELS 헤지**에서는 신규 스텝다운 ELS가 발행되면 델타·감마·베가를 계산하여 선물·옵션·현물 조합으로 Greeks를 중립화합니다. 기초 지수가 녹인 레벨에 근접하면 감마가 급격히 변하므로 바이감마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시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시나리오 D, HFT 딥러닝 전략 배포에서는 틱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모델 훈련과 검증, 백테스트와 페이퍼 트레이딩 단계를 거칩니다. 모델이 검증을 통과하면 리눅스 저지연 서버에 프로덕션 배포가 이루어지고, 실시간 드로다운(drawdown) 기반 자동 on/off 제어가 작동합니다. 주간 단위로 팀 내 디베이팅을 통해 모델 성능을 리뷰하고, 차세대 iteration을 기획합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축의 업무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데이터 → 모델 → 실행 → 리뷰"의 순환을 반복하며, 이 순환 속에서 개발 역량과 시장 이해, 리스크 감각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지원 전략 시사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저는 Python으로 어떤 백테스트를, C++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형태의 **개발 실적의 구체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금융공학 지식은 Greeks·옵션 프라이싱·ETF NAV 메커니즘 중 단 한 개라도 스스로 구현하고 백테스트한 경험이 있어야 디베이팅 문화에 적합한 '빌더'로 비춰집니다. 한화투자증권이 명시한 "금융 경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역으로 활용하여, 비금융 출신이라면 기술·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과를 PnL이나 생산성 지표로 환산해 제시하는 방식이 정공법입니다. 예컨대 "모델 정확도 개선으로 신호 품질을 X% 높였다"거나 "데이터 파이프라인 리팩토링으로 배치 처리 시간을 Y시간에서 Z분으로 단축했다"는 식의 수치화된 결과가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디지털금융-Trading은 향후 RWA와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원자가 이 방향의 관심과 준비를 보여주면 회사의 장기 비전과 지원자의 커리어 비전이 일치한다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Trading 영역에서 개발로 기여하되, 장기적으로는 RWA 유통·호가 영역에서 회사의 디지털 실크로드 비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식의 '단기 직무 적합성 + 장기 비전 정합성' 구조의 답변이 가장 설득력 있는 구성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1. **McKinsey** **글로벌** **자본시장** **보고서(업계** **일**
반) —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financial-services/our-insights>
2. **PwC** **Korea** **조각투자-STO** **이슈브리프** —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understanding-fractional-investment-and-sto.html>
3. **자본시장연구원** **STO 리포트**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cno=6058
4. **금융위** **토근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5. **금융위**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2)** — <https://www.fsc.go.kr/no010101/84000>
6.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2025.6.19)** — <https://www.fsc.go.kr/no010107/84785>
7. **금감원** **2025** **증권사** **영업실적(아시아**
A)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15>
8. **스트레이트뉴스** **2025** **증권사** **9.2조·해외주식**
34%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830>
9.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일평균** **24.2조원** — <https://www.fnnews.com/news/202601151635020627>
10. **서울경제** **MTS** **체결비중** **66%** **돌입**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8176>
11. **서울경제** **자기자본** **양극화와** **IMA·발행어**
음 —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QOTGUYX>
12. **대한금융신문** **3Q** **자기자본** **순**
위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20>
13. **Lexology** **2025.11.27** **STO** **법안** **정무위** **통**
과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3a88fac-7b62-4d51-95d8-d28e24a8d49c>
14. **시대일보** **2025** **연간 실적·글로벌 전략** — <https://www.sidae.com/article/2026041611191713576>
15. **뉴시스** **3Q25 실적**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2182
16. **헤럴드경제** **2026** **경영전략** **RWA** **허브 비전**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41280>
17. **한국경제** **장병호** **대표 선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152266>
18. **인사이트코리아** **장병호** **해외통** **분**
석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01>
19. **머니투데이** **두나무** **지분** **매각** **검토** **보**
도 — <https://www.mt.co.kr/stock/2025/09/29/2025092914300539755>
20. **이투데이** **두나무** **지분** **매각** **계획** **없음** **확정** **공**
시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8835>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Trading

21. 이투데이 쟁글 100억원 전략투자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0807>
22. 더가디언 시큐리타이즈 투자 보도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3601>
23. 스트레이트뉴스 TraDeFi 브랜드·크리시스랩스 MOU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8>
24. 서울경제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R34209X>
25. 이투데이 PLUS 공동 브랜드 확장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1402>
26. 더벨 한화그룹 금융 계열분리 시나리오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12170957076840102838>
27. 딜사이트 한화투자증권 통합 MTS 개발 — <https://dealsite.co.kr/articles/124948>
28. 글로벌이코노믹 AI 탑재 MTS 신규 출시 — https://www.g-eneews.com/article/Securities/2025/02/202502171556249985edf69f862c_1
29. 뉴스핌 2026 상반기 신입 공채 보도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14000447>
30. 헤럴드경제 2026 공채 김도형 혁신지원실장 코멘트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6571>
31. 자소설닷컴 2026년 상반기 한화투자증권 공채 공고 — <https://jaseol.com/recruit/103561>
32. 한화투자증권 2026 디지털·글로벌 경력 채용 공식사이트 — <https://recruit-hanwhawm.com/>
33. 서울대 CSE 한화투자증권 Trading본부 HFT팀 경력 JD — <https://cse.snu.ac.kr/en/community/notice/19735>
34. 한화인 공식 핵심가치(도전·혁신·정도) — https://www.hanwhain.com/web/hanwha/main_value/main_value.do
35. 한화투자증권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https://www.hanwha.co.kr/assets/data/philosophy/Hanwha_Investment&Securities_Sustainability_Report_2025.pdf
36. KRX 시장조성·LP 계약 현황 — <https://data.krx.co.kr/contents/MDC/MDI/mdiLoader/index.cmd?menuId=MDC02021701>
37. FnGuide 한화투자증권 재무·Trading본부 실적 — 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gicode=A003530